

<p>經濟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再生해서 物件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費用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消費가 안 된다 하는 얘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를 改善하기 위해서 저희가 市政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國家에다가 이러한 再生產業에 대해서 稅制支援이라든가, 金融支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國民들이 再生用品의 消費를 促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分擔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弘報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冊子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p> <p>다만, 아무리 우리가 弘報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物件의 質이 상당히 좋아야만 市民들이 쓸 것이다, 그래서 工場의 育成 支援策은 政府가 맡아야 될 部分이고, 우리는 市民들이 再活用品을 많이 사용하도록 弘報次元에서 우리 地方政府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消費促進 弘報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그래서 우선 官公署, 公共機關에서는 종이 같은 것은 전부 再生用紙를 쓰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p> <p>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公共用 봉투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家庭에서 쓰는 봉투와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醫療用 廢棄物 中에서 一回用 침이라든가 一回用 주사, 이런 것은 特定廢棄物로서 우리 清掃事業本部가 이것을 擔當하지 않고 市の 경우 保社環境局이 이 分野를 擔當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침은 廢棄物 處理業者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全量 收去해다가 金浦로 가져가지 않고 特定廢棄物 處理場에 갔다가 燒却하거나 埋立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p> <p>○李昌根委員 주사침이나 一回用 침…….</p> <p>○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埋立하는 것이지요.</p> <p>○李昌根委員 埋立한다고요?</p> <p>○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타지 않는 것은 埋立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이것은 金浦埋立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p> <p>○委員長 李敏國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p> <p>이상으로 清掃事業本部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議事棒 3打)</p> <p>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p> <p>지금 時間이 12時 20分 되었습니다만, 請願 問題가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끝을 마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p> <p>(「계속합시다」하는 委員 있음)</p> <p>계속하는 것에 異議 없으십니까?</p> <p>(「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hr/> <p>2. 燒却場豫算을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轉換要求請願(李汪烈議員 紹介)</p> <p>(12時 20分)</p> <p>○委員長 李敏國 다음 議事日程 第2項 燒却場 豫算을 쓰레기 綜合處理 技術開發費로 轉換要求 請願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同 請願의 趣旨說明은 紹介議員인 李汪烈議員께서 事전에 參席할 수 없다는 事前通報가 있었으므로 趣旨說明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p> <p>곧바로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님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p> <p>.....</p> <p>(報告)</p> <p>소각장 예산을 쓰레기 종합처리기술 개발비로 전환요구 청원</p> <p>검토보고</p>
--	---

1. 개요

- 청원건명 : 소각장 예산을 쓰레기 종합처리 기술개발비로 전환요구 청원
- 청원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주공APT 504동 106호 감양규 외 8명
- 청원서 접수 : 1994년 12월 10일 접수(1994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 회부)
- 소개의원 : 보건사회위원회 이왕렬의원(강동제1선거구)

2. 청원사유

- 서울시는 쓰레기를 불연성, 가연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태워 버리고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울시내 13개소에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일부지역은 건설 중에 있고, 일부지역에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 실제 내용적으로는 탈소각,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려 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오직 대형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일변도의 방침을 지속해 오고 있으므로,
- 쓰레기 소각장 예산은 서울시민을 공해로 병들게 하고 국가예산을 좀먹게 하는 시설로서 소모성 공해 유발성 예산이라고 단정하고,
- 소각정책을 탈소각정책으로 바꾸고, 소각장 예산을 재활용 종합정책 연구비 예산으로 바꾸는 반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예산을 삭감하여 쓰레기 처리 종합연구비로 우선 투자하며 꼭 태워야 할 쓰레기만을 태우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성립시켜 달라는 것이 본 청원인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3. 청원요지

- 서울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환경영향평가하청, 설계비, 시설비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 예산을 폐기물 종합처리센터를 세우고, 자원회수가 가능한 현대적 재활용시설 설

치에 필요한 기술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전환해야 하고,

-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구체적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서 성상별 처리량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규모 소각장을 계획한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므로 탈소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시에서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1일 1,900톤의 소각로 시설을 계획한 것은 재활용 등 쓰레기의 성상별 조사 없이 소각장 규모를 대규모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강동구 고덕2동 45번지 일대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곳으로 서울과 경인지구 주민들을 병들게 하는 소각장 설치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소각시설은 심각한 대기오염 시설이므로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수은,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총량을 정확히 측정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청원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

- 본 건 청원을 검토한 바 청소사업본부에서 현재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규모가 대규모이므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일반 쓰레기의 60%는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주방용 쓰레기의 40%는 발효 등에 의하여 자원화 한다면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10%로 줄일 수 있으므로 소각장 시설 규모의 대형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둘째, 대규모 소각장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자원재활용 시설의 기술개발비와 폐기물 종합센터 건립 예산으로 전환을

<p>요구한 것입니다.</p> <p>셋째, 영향권내의 주민건강과 관련하여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발표 요구와 강동구의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고덕2동 45번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소각장의 설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p> <p>○청원인의 소각장 시설규모 축소요구 의미는 소각장 예산을 재활용 종합정책 연구비로 돌려 현대적 재활용 시설에 우선투자함으로써 재활용 물량의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소각물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소각장규모의 대형화에 투자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자원재활용의 촉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종량제의 정착과 관련시켜 보더라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재생산 체계 등에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청원인의 뜻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현실적으로 서울시의 '95년도 예산에서 자원회수시설의 투자비에 대한 재활용 사업투자비의 비율이 1%밖에 안된 것을 보더라도 자원 재활용 사업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한편 자원회수시설의 설치규모 등이 서울시의 장·단기계획 또는 지역별 설치계획에 의한 시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제기된 청원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계획을 들은 후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참고로 본 건 청원과 관련하여 강동구의 회 제35회 정기회 94년 12월 26일에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있어 처리지역을 강동구로 제한하여 건립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p> <p>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同 請願에 대하여 執行部의 意見を 들도록 하겠습니다.</p> <p>○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우선 請願에 나와 있는 內容을 具體的으로 論議하기 전에 本市의 쓰레기 處理 基本方向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저희들이 하는 事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선 市民들이 排出하는 쓰레기를 減量化를 시키는 것이 1次 目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從量制의 施行도 쓰레기 發生量의 減量化에 상당한 寄與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p> <p>두번째는 發生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再活用하는데. 지금 再活用 專門家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全 世界的으로 發生된 쓰레기의 40%까지가 再活用の 限界點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p> <p>그래서 先進外國의 경우에 40%가 바로 再活用 目標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60%의 쓰레기는 물론 이것은 國家的으로 봐서 全量 埋立하는 國家도 있고, 스위스와 같이 100% 燒却하는 國家도 있습니다.</p> <p>그러나 美國 같은 나라는 燒却率이 비교적 낮은데 한 17% 정도 됩니다만, 그 나라는 國土가 매우 넓기 때문에 燒却率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지만 國土가 좁은 나라일수록 燒却率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埋立場의 確保困難으로 인해서 燒却率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採擇해야 할 基本方向이 아닌가 생각되고, 燒却한다면 쓰레기의 量이 8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가지고 燒却한 재를 埋立하는 것으로 해서 減量化, 再活用, 燒却, 埋立 이것을 균형 있게 推進하는 政策을 현재 進行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의 基本方向을 말씀드리고요.</p> <p>江東燒却場의 경우에도 그의 일환으로 그것을 建設을 하는데 당초에 지금 여기 請願書 內容을 보면 1日 處理能力 1,900톤의 施設容</p>
---	--